

번역학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연구방법론적 전환의 필요성 —

이 향*

(한국의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

Lee, Hyang. Research methodology in translation studies.: Call for a paradigm shif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e discipline of translation studies.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discusses the necessity for looking into research methods in the current phase of development of translation studies. The second part examines th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translation studies in Korea, the reasons that most researchers adopt the empirical method, and the assumptions driving this choice. The third part explores another branch of research methods within translation studies apart from the empirical method by analyzing major cases of conceptual research and methodologies used by prominent authors. The conclusion goes beyond the dichotomy of empirical and conceptual research, recommending approaches designed to contribute to the methodological maturity of translation studies.

Keywords: research methodology, empiricism, conceptual research, history of translation studies, philosophy of translation studies.

■ 차례

- | | |
|---------------------|-------------------|
| I. 왜 연구방법론인가 | III. 또 다른 방법론적 흐름 |
| II. 국내 번역학 연구방법의 특징 | IV. 결론: 이분법을 넘어서서 |

* 이 논문은 『통역과 번역』 15(1)호에 게재된 논문을 확대·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I. 왜 연구방법론인가

우리 사회에서 번역학이 차지하는 위상은 번역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야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미 FTA 협정서의 영문본을 국문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역 문제로 나라가 한창 시끄럽던 2011년, 시민단체와 언론이 번역의 오류를 집어내고 국회의원들이 오역의 책임을 서로 추궁할 때에도 번역학자들의 의견이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인문학 전체가 위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최근 ‘눈부시게’ 성장해 온 번역학의 쟁거를 자축하는 학계의 만족감과 대조를 이루며 필자를 포함한 연구자들을 씩씩하게 만든다.

물론 우리 연구자들은, 이것이 국내 번역학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아직은 번역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자위하며, 미래에는 달라질 번역학의 위상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사실, 서구 번역학의 역사를 대략 40년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번역학의 역사는 길게 봐야 20년도 되지 않는다. 한국의 번역학이 신생학문으로 생겨나서 성장하게 된 약사를 대략 훑어보면 이렇다. 번역에 대한 이런 저런 담론의 존재와 별개로, 국내에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을 표방하는 최초의 학회인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現 한국통역번역학회)가 발족한 것이 1998년이고 이 학회에서 최초의 통번역학 전문 학술지인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現 『통역과 번역』)이 출간된 것이 이듬해인 1999년이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번역학 박사과정이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 개설된 것이 2000년,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에 개설된 것이 2005년이다. 한국연구재단(舊 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표에 ‘통역번역학’이라는 명칭이 도입된 것이 2007년이다. 출발점을 1998년으로 잡는다 해도 겨우 15년의 길지 않은 역사이다.

게다가 번역학이라는 신생학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이러한 ‘제도화’ 과정과 반드시 속도를 같이 한 것은 아니다. 번역학이 언어학이나 문학의 하위 분야가 아닌 독립학문으로 서기 시작한 시점을 묻는다면, 그것은 훨씬 최근의 일이고,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인식변화는 여전히 진행형일 뿐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내 학계에서조차 번역학이라는 학문명은 여전히 생소하게 여겨지며, 번역학의 존재를 안다 하더라도 이를 언어학이나 문학의 하위 분과학문으로 보는 시각은 역시 여전히 불식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내 번역학이 보여주는 역동성은 가히 놀랍다. 이러한 역동성은 아시아 국가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것으로, 현재 국내에만 총 5개의 번역학 전문학회가 존재하며 6개의 번역학 전문학술지가 있다. 여기에 어문학을 비롯한 기타 인접 학문 공간에서 문학, 및 언어학 전공자들이 발표하는 번역 관련 논문들을 감안하면, 국내 번역학의 양적 팽창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국내의 번역학은 그 어떤 인문학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번역학 연구자들이 자평하듯, 이만하면 우리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고 자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번역학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까?